

# 동아시아 고대사회 닭의 확산과 그 함의: 계림의 흰 닭과 ‘꿩 대신 닭’ 사이의 간극\*

고은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박사과정

닭은 사육종 동물 가운데 비교적 최근에 순화된 종으로 중국 및 인도 대륙에서 처음 순화된 이후 전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다. 그런데 확산의 속도가 지역마다 균일하지 않고, 인접한 지역에서 사육종화된 닭을 기르더라도 주변 지역으로 곧바로 확산되지 않는 등 다른 사육종 동물의 확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육종 동물을 도입하여 기르는 것은 도입되는 지역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도입된 초기에는 희소성을 가져 위세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한반도에서 닭은 특히 신라 건국세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등장하는데, 이는 도입 초기 가지게 된 희소성에 상징성을 더해 정치적으로 활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 이전 시기부터 꿩을 식재료이자 희생의례의 제물로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육종 닭이 즉각적으로 이를 대체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야생 동물로서 꿩이 가진 단점을 사육종 닭이 보완하게 되면서 서서히 꿩을 대체해 간 것으로 이해하였다.

주제어 야생 동물의 순화, 사육종 동물, 닭, 꿩

## I. 머리말

닭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사육종 동물이며 모든 대륙에서 길러지고, 그 어떤 동물보다도 많은 사회에서 식용된다. 사람들은 지위나 재산, 사는 곳과 무관하게 나름의 방식으로 닭을 먹는다. 그런데 닭이 현재와 같이 널리 가축으로서 길러지게 된 것은 의외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길지 않은 역사 속에서 인간과 닭의 관계는 몇 차례의 변곡점을 넘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고대사회 닭의 확산과 그 양상에 담긴 함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야생 동물의 순화(馴化, domestication)는 아시아 대륙 각지에서 이

\* 이 연구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아시아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루어졌고, 이 사육종 동물들은 중국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순화란 야생 동물이 인간에 의해 서식환경, 먹이, 번식과정 등이 관리된 결과, 야생의 원형종과 확연히 구별되는 형질적·생리적·행동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종, 즉 사육종 동물 — 가축 — 으로 변화되는 것을 일컫는다(Clutton-Brock, 1999; 이준정, 2013에서 재인용). 중국 대륙에서는 돼지, 소, 말, 개 등 대부분의 사육종 동물이 신석기시대부터 길러졌지만, 한반도에서는 신석기시대부터 사육된 동물은 개가 유일하고, 그 외의 사육종 동물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즈음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이르러서야 사육된 증거가 확인된다(이준정, 2011). 한반도 내에 서식하던 야생 동물이 순화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 주변 지역에서 순화된 사육종 동물이 한반도로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에는 가축의 등장이 상당히 늦어지게 되었다.

닭의 순화 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딘 편인데 동물고고학 교재에서조차 주요 사육종 동물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Reitz and Wing, 2008) 다소 진전된 연구 내용이 소개되었을 정도다. 한반도에서도 언제부터 닭이 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 다만 꿩(雉)과 구분되는 긴 꼬리를 가진 닭(長尾鷄)이 삼국지 위지동이전이나 후한서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시기에는 한반도 내에서 닭이 사육되었을 것이라는(조태섭, 2017: 9)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이처럼 닭의 순화 과정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닭이 다른 사육종 동물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순화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고고학 유적에서 닭 유존체<sup>1</sup>의 출토 빈도가 높지 않은 것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역사기록에 닭에 대한 언급이 빈번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고고학 유적에서는 닭 유존체가 출토된 사례가 거의 없다. 과거에 닭 유존체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던 몇몇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연구를 통해 대부분 꿩으로 재보고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기록과 고고학 자료상의 괴리가 오히려 인간에게 닭이 어

<sup>1</sup> 동물유존체란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뼈, 껍각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연구자에 따라 동물유체, 동물자료, 동물화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자료의 출토 맥락과 성격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상이하다(이준정, 2003: 6). 본 연구자는 ‘동물 유골의 잔해’라는 의미에서 遺存體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면 의미였고, 어떻게 이용되었는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이제 한반도에서의 역사기록과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대사회 닭의 흔적을 따라가 보고, 나아가 동아시아에서의 닭의 확산 과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닭의 순화와 확산 루트<sup>2</sup>

닭의 순화와 확산 과정은 아직도 상당한 부분이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닭의 야생 조상이 적색야계(red junglefowl)라는 것인데,<sup>3</sup> 이는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인도 대륙 등지에 서식하는 종이다. 이 닭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DNA 연구는 현재 야생의 원형종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 서식지역에 최근 200년 사이에 새로운 종이 확산되어, 원래 이 지역에서 서식하던 적색야계 야생종의 후손을 찾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인간이 닭을 순화한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먼저 식용하기 위한 목적, 의례의 제물로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마지막으로 투계(cock fighting)를 즐기기 위한 목적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닭의 순화지역 중 하나로 추정되는 남아시아지역에서는 현재도 투계가 성행하고 있으며(Serjeantson, 2009: 280) 이를 위해 적색야계를 포획하는 일이 빈번해 투계가 닭의 순화에 있어 주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적색야계가 순화된 이후 가축으로서의 닭이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기 쉬운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닭의 확산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적인 닭의 확산 양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확인된다. 먼저 적색야계의 순화가 이루어진 지역부터 살펴보면, 가축으로서 닭의 등장은 기원전 2000~3000년 즈음 중국이나 인도 대륙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

<sup>2</sup> 본 장의 닭의 순화 과정과 확산에 대한 선행연구는 Serjeantson(2009: 268-273)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sup>3</sup> 최근 닭의 야생 조상이 적색야계 외에 최소 3종 이상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Lawal et al., 2020).

이 크다. 이 지역들의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야생종과 함께 사육종 닭 유존체가 상당량 출토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접한 태국이나 캄보디아 등지에는 기원 전후 무렵까지도 닭 유존체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서쪽으로의 확산 양상을 살펴보면, 이집트에서 상당히 이른 증거가 확인된다. 이집트에서는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기 이전에 역사기록과 관련 유물을 통해 닭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기원전 15세기 중반에 투트모스 3세가 ‘매일 알을 낳는 새 4마리’를 시리아로부터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이집트에서 닭을 묘사한 유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천년기 후반이고, 닭미이라는 발견되지 않았다(Houlihan and Goodman, 1986). 이후 기원전 1천년기가 끝날 무렵 페르시아에 의해 이집트가 정복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이집트의 닭은 외부로 확산되지 않았다. 그리스 고전 문학에도 언급된 바가 없고, 미노스 문명의 프레스코 벽화 어디에도 닭은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다 기원전 7세기경 그리스에 닭이 새겨진 동전이 등장하고, 이후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 갑자기 로마에서 다양한 닭의 종에 대한 설명과 사육방법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Serjeantson, 2009: 270). 이집트까지 전해진 닭이 긴 시간 동안 확산을 멈추었다가 갑자기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다.

닭이 유럽으로 전파된 것은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쳤을 것이라는 설과 시리아 등 서아시아 지역에서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설이 있다. 또 지중해 지역으로 전파된 것은 기원전 8세기 페니키아인과 관련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323~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이끌고 인도에 왔을 때 그 군인들이 주요 매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인도에서 투계의 재미와 함께 닭고기를 맛보게 되었고, 그 후 귀향길에 닭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이라는 가설이다(Serjeantson, 2009: 271). 이후 그리스에서 닭은 널리 사육된다. 영국에서는 닭이 기원후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점령한 400여 년 동안 군사 유적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길러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1천년기 중반 비로소 닭이 급속히 확산되지만, 인접한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에는 중세까지도 닭이 출현하지 않는다(Serjeantson, 1988).

동남아시아를 통한 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산은 서쪽으로의 확산보다 다소 이르거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는데 폴리네시아 도서 지역에서는 기원전 2천년기부터 반(半)사육종 상태의 닭이 확인된다(Storey et al., 2008). 폴리네시아 지역에서의 닭의 확산도 역시 단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닭의 사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닭을 찾아보기 힘들다. 마르케사스 제도에는 11세기까지 닭이 거의 없다가 13세기에는 갑자기 지역 야생 조류를 절멸시킬 정도로 활발히 이용된다(Steadman and Rolett, 1996). 남아메리카 지역의 경우는 스페인인들이 아마존 분지와 안데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미 닭을 기르고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그 이전에 이미 닭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NA 연구를 통해서 남아메리카 지역의 닭들은 폴리네시아 지역의 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Storey et al., 2007) 폴리네시아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닭이 도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으로의 확산도 다소 늦다. 동아프리카는 이집트, 서남아시아, 인도 등과 무역을 통해 기원후 1천년기 동안 지속적인 교류를 하지만 기원후 800년 전에는 닭이 도입되지 않았다. 서아프리카 지역은 기원후 500~800년 문화층에서 처음 닭이 발견된다(MacDonald, 1992; Blench and MacDonald, 2000).

이처럼 각 지역에서의 닭의 확산 양상을 보면 인접한 지역에서 닭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곧바로 도입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닭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단 한번 확산이 이루어지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닭의 확산 방식은 닭의 순화 과정에서 중국 대륙에 인접한 한국과 일본에서 닭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한반도 고대사회에 남겨진 닭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다.

### III. 신화 속의 닭: 오해와 실제

부여의 동명,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혁거세·알지·탈해, 가락국의 수로는 모

두 난생(卵生)으로 이는 고대사회 건국 주체세력이 자신들의 권력이 천부적인 것임을 주장하는 표현이었다. 이 중에서도 신라에서는 닭이 중시되었는데, 닭은 특유의 계명(鷄鳴)으로 말미암아 새벽과 빛, 생명의 새이자, 태양조의 세속적 화신으로 여겨졌다(권오영, 1999: 105-113).

9년(65) 봄 3월에 왕이 밤에 금성(金城)의 서쪽 시림(始林)의 나무 사이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날이 밝자 호공(瓠公)을 보내 살피게 하니 금빛의 작은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 이에 이름을 알지(關智)라고 하고, 금궤에서 나왔기에 성을 김(金)씨라고 하였다. 시림의 이름을 계림(雞林)이라고 바꾸었는데, 이로 인해 계림이 국호가 되었다.<sup>4</sup>(『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 1)

이는 『삼국사기』에 실린 경주 김씨의 시조, 김알지의 탄생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다. 이른바 김알지 탄생설화로서 그가 태어난 곳이라고 알려진 ‘계림’이라는 명칭은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현재까지도 경주의 한 지역명으로 남아 있다. 계림은 사료, 사라, 신라 등과 함께 신라의 다양한 국호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고, 왕도인 경주를 이르는 지명으로 쓰이기도 하였다(채미하, 2016: 16). 이외에도 신라와 관련된 역사기록에는 닭이 자주 등장하는데, 『삼국유사』에는 박혁거세가 계정(鷄井)에서 태어났고, 그 부인인 알영은 계룡(鷄龍)이 낳아 입술이 닭의 부리처럼 생겼다고<sup>5</sup> 전하고 있다. 박혁거세, 알영, 김알지에 이르기까지 건국의 시조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모두 닭과 연관되어 있다.

신라인들의 닭에 대한 인식은 대외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삼국유사』에 천축(天竺)에서는 신라를 구구타(鷄)예설라(貴)라고 부르고 신라인들이 계신(鷄神)을 받든다<sup>6</sup>는 기록이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 또한 신라를 떠올릴 때 닭과 연관지었

<sup>4</sup> 九年, 春三月, 王夜聞金城西始林樹間有鷄鳴聲. 暹明遣瓠公視之, 有金色小櫃掛樹枝, 白雞鳴於其下. 瓠公還告, 王使人取櫃開之. 有小男兒在其中, 姿容竒偉.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胤乎.” 乃收養之. 及長, 聰明多智略. 乃名關智, 以其出於金櫃, 姓金氏.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三國史記』 卷1 新羅本紀1).

<sup>5</sup> 『三國遺事』 卷1 紀異1 新羅始祖赫居世王.

<sup>6</sup> 天竺人呼海東云矩吒訶訶說羅, 矩吒訶言雞也, 訶說羅言貴也. 彼土相傳云, 其國敬雞神而取尊, 故戴翎羽而表歸也(『三國遺事』 卷4 義解5 歸竺諸師).

던 것으로 보인다. 또 663년 당이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雞林州大都督)’으로 책봉하는데, 책봉호에 보이는 국호는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나라에서 칭한 국호를 중국 왕조가 그대로 받아들여 국왕호로 책봉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채미하, 2016: 17) 문무왕이 계림이라는 명칭이 포함된 책봉호를 받은 것 역시 신라인들의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천여 년이 흐른 뒤 한반도에는 ‘핑 대신 닭’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이는 현대인들도 즐겨 쓰는 속담으로 꼭 적당한 것이 없을 때 비슷한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를 때<sup>7</sup> 사용된다. 이는 설날 떡국에 핑고기를 넣어야 하는데 핑을 구하기 어려워 일반 가정에서 기르는 닭을 잡아 닭고기를 떡국에 넣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조선 순조 20년(1820)에 정약용이 엮은 『이담속찬(耳談續纂)』에는 “핑을 잡지 못하니 닭으로 그 수를 채우다(雉之未捕, 鷄可備數)”라고 기록되어 있다.<sup>8</sup> 시간이 흐르면서 건국 세력 정당성의 상징이던 존재에서 핑을 구하지 못했을 때 차선으로 선택하는 식재료가 된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핑에 대한 역사기록도 상당히 많은데 닭과는 상징하는 바가 사뭇 다르다.

신라 진골(眞骨) 제31대 왕 신문왕(神文王) 때인 영순(永淳) 2년 계미(癸未)에 재상 충원공(忠元公)이 장산국(襄山國)의 온천에 목욕을 하고 성으로 돌아올 때 굴정역(屈井驛) 동지야(桐旨野)에 이르러 쉬었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매를 놓아 핑을 쫓게 하니 핑이 날아서 금악(金岳)을 넘어가는데 간 곳이 묘연하였다. [공이 매의] 방울소리를 듣고 찾아가 굴정현(屈井縣) 관가 북쪽 우물가에 이르니 매는 나무 위에 앉아 있고, 핑은 우물 속에 있는데 물이 핏빛과 같았다. 핑은 두 날개를 벌려 새끼 두 마리를 안고 있었으며, 매도 또한 측은히 여기는지 감히 잡지 않았다.<sup>9</sup>(『三國遺事』卷3 塔像4 靈鷲寺)

백제와 신라에서는 민간에서 귀족과 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매사냥이

<sup>7</su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sup>8</sup>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https://folkency.nfm.go.kr/kr/dic/2>) 참고.

<sup>9</sup> 寺中古記云, 新羅眞骨第二十一主神文王代, 永淳二年癸未, 宰相忠元公襄山國[即東萊縣, 亦名襄山國]溫井沐浴, 還城次到屈井驛桐旨野駐歇, 忽見一人放鷹而逐雉, 雉飛過金岳杳無蹤迹, 聞鈴尋之到屈井縣官北井過, 鷹坐樹上, 雉在井中水渾血色, 雉開兩翅抱二雛焉. 鷹亦如相惻隱而不敢攫也.

유행하였는데, 이때 주로 사냥하는 동물이 바로 꿩이었다(이장웅, 2017: 218-221). 꿩은 상서롭게 여겨졌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왕의 식단에 오르는 식재료였다.

2월 경오(庚午) 초하루 무인(戊寅) 혈호국사(穴戶國司) 초벽련추경(草壁連醜經)이 흰 꿩을 바치며, “국조수(國造首)의 동족(同族) 지(贄)가 정월 9일에 마산(麻山)에서 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것을 백제군에게 물으니, 백제군이 “후한(後漢) 명제(明帝) 영평(永平) 11년(68)에 흰 꿩이 여기저기에 나타났습니다.”라고 하였다. 또 사문(沙門)들에게 물으니, 사문들이 “귀로 들어 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시어 민심을 기쁘게 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도등법사(道登法師)는 “옛날 고려가 절을 짓고자 하여 살피보지 않은 땅이 없었는데, 바로 한 곳에서 흰 사슴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이곳에 절을 세우고 백록원사(白鹿園寺)라고 이름하고 불법(佛法)을 머물게 하였습니다. 또 흰 참새가 한 절의 전장(田莊)에 나타났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좋은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또 당(唐)에 보냈던 사신이 다리가 셋인 죽은 새를 가지고 오니 나라 사람들이 또 좋은 징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비록 대수롭지 않은 것인데도 오히려 상서로운 일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흰 꿩이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sup>10</sup>(『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白雉元年(650) 2月)

왕은 하루에 쌀 서말과 꿩 아홉 마리를 잡수셨는데 경신년(庚申年)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은 그만두고 아침과 저녁만 하였다. 그래도 계산하여 보면 하루에 쌀이 여섯 말, 술이 여섯 말, 그리고 꿩이 열 마리였다.<sup>11</sup>(『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이처럼 역사기록 속에서 닭과 꿩은 서로 상징하는 이미지가 상이하다. 한반도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용,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거나 말, 닭 등 한반도 외부로부터 도입된 사육종 동물들이다. 이러한 동물들은 과거인들이

<sup>10</sup> 二月庚午朔戊寅，穴戶國司草壁連醜經，獻白雉曰，國造首之同族贄，正月九日，於麻山獲焉。於是問諸百濟君，百濟君曰，後漢明帝永平十一年，白雉在所見焉。云云，又問沙門等，沙門等對曰，耳所未聞，目所未覩，宜赦天下，使悅民心，道登法師曰，昔高麗欲營伽藍，無地不覽，便於一所，白鹿徐行，遂於此地，營造伽藍，名白鹿園寺，住持佛法，又白雀見於一寺田莊，國人僉曰，休祥，又遣大唐使者，持死三足鳥來，國人亦曰，休祥，斯等雖微，尚謂祥物，況復白雉。

<sup>11</sup> 王膳一日飯米三斗，雄雉九首，自庚申年滅百濟後，除晝膳，但朝暮而已，然計一日米六斗，酒六斗，雉十首(『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본래 이 땅에 자생하는 일상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텃새인 꿩은 사냥의 대상이자 식재료로 외부로부터 도입된 가축으로서의 닭과는 과거인들의 삶에서 서로 다른 의미와 역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는 기존에 영남지역 분묘유적에서 닭 유존체라고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육종 닭이 지닌 특수성, 역사기록에 나타난 신라 지역에서의 닭의 상징성 등을 토대로 일종의 위세품이자 상징적 동물로서 닭이 부장된 의미를 이해하였다(이준정, 2017: 6). 그런데 최근의 연구대로 이것이 사육종 닭이 아니라 야생의 꿩이라면 고대사회 닭의 존재와 의미는 전면적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닭 또는 꿩 유존체에 대해 살펴보겠다.

#### IV. 고고학 자료 속 닭의 부재

닭과 꿩은 모두 닭목(目) 꿩과(科)에 속하는 조류종으로 서로 간에 형태학적 차별성이 크지 않다. 또 꿩 과의 조류 자체가 성적 이형(性的異形, sexual dimorphism)이 뚜렷해 꿩과 유존체를 대상으로 야생의 꿩인지, 사육종 닭인지를 동정하는 것은 난해하다(이준정, 2017: 6). 4~50년 전부터 영남지역 삼국시대 고분에서는 종종 닭 유존체가 출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고령 지산동 44호분에서 출토된 조류 유존체는 수의학자인 모기철 선생에 의해 닭으로 보고되었고(모기철, 1979), 다른 유적에서도 토기 안에 담긴 채 출토된 조류의 뼈들은 종종 닭뼈로 인식되었다. 천마총에서는 계란이 다량 담긴 토기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문화재관리국, 1974).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조류 유존체가 발견된 사례가 드물고<sup>12</sup> 생물학적 대조 자료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이준정, 2017: 6) 정확한 조류 동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기존 분석 결과에 대해 학계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조류 유존체 가운데 꿩이 다수 보고되면서 이에

<sup>12</sup> 삼국시대 이전에 형성된 패총 유적 등지에서 조류의 뼈가 출토된 바가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동정된 사례도 드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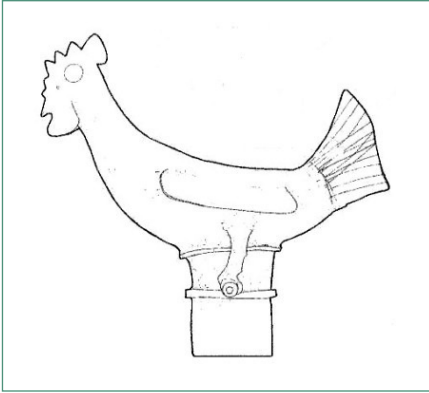


그림 1 일본 닭 모양 하니와 나라현 마키무쿠유적, 4세기 전반(賀來孝代, 2017)

기존에 보고된 자료들도 닭이 아니라 꿩일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처럼 과거에 닭으로 보고된 자료들이 실은 꿩이라고 재보고되는 사례는 비단 한국고고학에서만의 일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자산 문화, 배리강문화 유적 출토 자료 등 가장 오래된 닭의 증거로 알려진 사례들이 최근의 재분석을 통해 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arton et al., 2020; Eda, 2016). 일본에서는 닭이 야요이시대에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Matsui, 2007: 64), 고고학 유적에

서 닭 유존체 자체는 출토된 사례가 없고, 다만 닭 모양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고 있다(賀來孝代, 2017)(그림 1).

본 장에서는 동물고고학적 연구와 DNA 분석 등 최근의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고고학 유적에서의 닭의 존재를 따라가 보겠다.

## 1. 동물고고학적 연구

한반도 고고학 유적에서는 조류 유존체가 발견된 예가 매우 드물고 자료의 특성상 부서지기 쉬워 원형 그대로 출토되기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 조류 유존체에 대한 동물고고학적 분석이 이루어진 유적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꿩과 닭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부척골의 머느리발톱(spur)의 형태(그림 2) 등이 기준이 되는데(Serjeantson, 2009: 267-286), 부척골이 온전하게 출토되지 않는 한 형태학적으로 닭과 꿩을 구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2011년부터 경산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조류 유존체에 대한 분석 보고가 연차적으로 이루어졌고(고은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7년 종합보고서가 출간되면서(고은별 외, 2017) 한반도 고대 조류의 이용 양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게 되었다. 경산 임당 유적은 최근까지 발굴조사되면서 추가로 동물유존체



그림 2 닭(좌)과 꿩(우)의 부척골 비교(좌: Serjeantson, 2009: 275 Fig. 11.1 수정, 우: 고은별 외, 2017: 286 사진 180)

분석 보고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보고된 경산 임당 유적 출토 동물유존체는 2만 5,000여 점이며, 이 가운데 조류는 8,000여 점에 이른다. 꿩, 기러기속, 오리속, 두루미과, 느시과, 고니속 등 다양한 조류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꿩이 6,000여 점으로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토되었고, 이 가운데 닭으로 동정된 자료는 1점도 없었다.

경산 임당 유적은 4~6세기에 축조된 삼국시대 대규모 분묘유적으로 이곳에서 출토된 꿩 유존체는 거의 대부분 토기에 담긴 채 분묘의 주곽과 부곽의 내부에 부장된 것이다(그림 3). 분묘에 조류가 부장될 때는 한 개체가 온전히 부장되거나, 혹은 머리와 발이 제거된 채 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한 개체가 온전히 부장되는 경우는 희생 제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음식의 성격으로 부장된 경우는 머리, 내장, 발 등이 제거된 경우가 많다(Serjeantson, 2009: 342). 임당 유적에서 꿩은 하나의 토기에 70마리(조영 EIII-2호 부곽 41번 단경호), 20마리(임당 7B호 부곽 E3N7), 19마리(조영 EIII-8호 주곽 128번 호) 등 대량으로 부장되는데, 꿩 외의 다른 조류들, 즉 기러기속이나 두루미과 등 철새류의 부장 방식과 매우 다르다. 아마도 철새류는 포획 시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텃새인 꿩과 같이 대규모 포획이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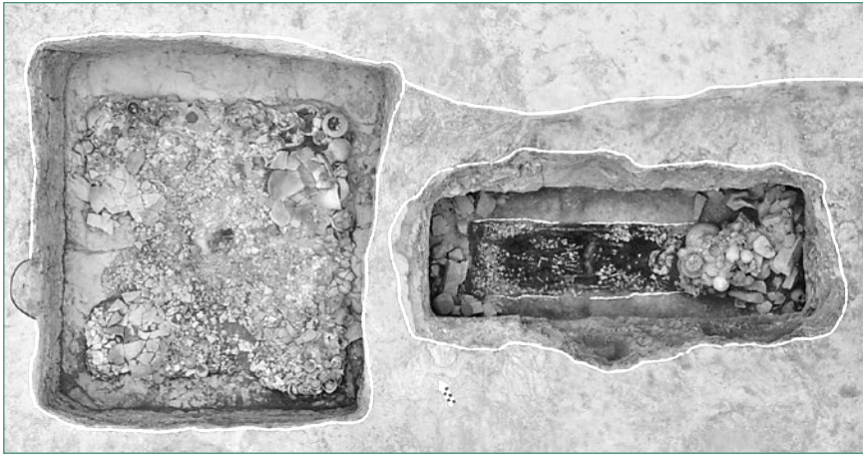


그림 3 임당 1호분 1A호의 주곽과 부곽(한빛문화재연구원, 2020: 7 사진 8 수정)

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겠지만, 찜 자체가 가진 식재료로서의 대표성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찜 외의 다른 조류들은 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무덤에 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임당 유적에 부장된 조류 유존체의 출토 양상을 보면 새의 부척골 이하 부위, 즉 ‘발’에 해당하는 부위가 부장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밖에도 머리와 장골 이하 부위, 즉 날개 끝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제거된 채 부장된다(그림 4). 최근 보고된 청주 봉산리 유적에서 확인된 찜의 경우도 날개를 이루는 상완골, 요골, 척골, 몸통과 날개를 잇는 오구골, 견갑골, 몸통을 이루는 흉골, 역시 발을 제외한 다리 부위인 대퇴골, 경족근골만이 출토되었다(조태섭, 2017). 두 유적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은 물론, 다른 묘제, 다른 부장 방식 등 전혀 상이한 매장 의례 속에서 확인된 조류가 이처럼 공통된 방식으로 해체되어 부장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당시 찜을 해체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조류를 식용할 때의 해체 방식<sup>13</sup>이 의례적 도살과 해체에 그대로 적용된 결과로 추정된다(고은별, 2018: 154-155).

<sup>13</sup> 시간차가 다소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 요리서에서 찜에 대한 요리 방법 중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구이로 과거인들이 가장 즐기는 찜 조리 방식이었는데, 이때 찜구이에 대한 설명에서 ‘대 가리와 발을 자르고’ 양념하여 굽는다고 언급되어 있다(김태홍, 1996: 90). 이를 고려하면 머리와 발

그런데 이러한 꿩의 이용 방식이 고고학 자료를 통해 꿩과 닭을 구분하는 데에 결정적인 문제를 초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닭과 꿩은 일반적인 골격의 형태적 특징이나 계측치를 통해서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수컷 부척골의 머느리발톱 부위 형태를 통해 닭과 꿩을 구분할 수 있는데(그림 2), 한반도 분묘 유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이 부위가 제거된 채 부장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한 종의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다행히도 경산 임당 유적에는 단 하나의 예외적인 사례가 있는데, 조영 EII-2호 주곽 92번 삼이부호에 크기의 차이가 있는 꿩 두 개체가 전혀 해체되지 않은 채 전신이 부장된 것이다. 8,000여 점에 이르는 꿩 유존체 가운데 출토된 부척골은 이 사례를 통해 확인된 좌우 각 2점에 불과했다. 이 자료들은 부척골의 형태와

계측치를 통해 일단 꿩으로 동정할 수 있었고, 한반도에서 채집된 꿩의 부척골에 대한 계측치 정보(원병오·김화정, 2011: 142), 일본 나라문화유산연구소 소장 꿩과 닭에 대한 계측치 정보(Matsui, 2007: 68)와 비교해 각각 큰 개체는 꿩 수컷, 작은 개체는 꿩 암컷으로 동정되었다(표 1). 이를 기준으로 경산 임당 유적에서 출토된 꿩과 유존체는 닭이 아니라 꿩이라고 동정할 수 있었으며, 수컷과 암컷의 구분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경산 임당 유적에서 꿩 유존체가 다량 출토됨에 따라 한반도 고대 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측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존에 닭으로 보고되었던 고령 지산동 44호분 출토 자료,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자료 등에 대한 검토 결과 닭이 아닌 꿩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을 자르는 것이 과거 꿩을 식재료로서 손질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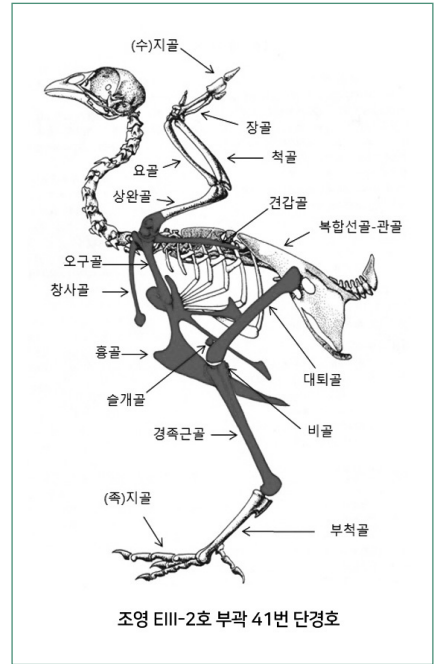


그림 4 한국고고학 유적 꿩의 출토 부위(고은별, 2018: 155 그림 5 수정)

표 1 대조자료들과 경산 임당 유적 출토 꿩의 부척골 길이 비교

	종	부척골 길이
한반도 채집 꿩	꿩( <i>Phasianus colchicus karpowi</i> ) 수컷	68.5~72.5mm
	꿩( <i>Phasianus colchicus karpowi</i> ) 암컷	54.2~69.2mm
	북꿩( <i>Phasianus colchicus pallasi</i> ) 수컷	57~75mm
	북꿩( <i>Phasianus colchicus pallasi</i> ) 암컷	63~67mm
일본 나라 문화유산연구소 소장 자료	꿩 수컷	70.4mm
	닭 수컷	90.6mm
경산 임당 유적 조영 EII-2호 주곽 92번 삼이부호 출토 꿩	큰 개체	74.9mm
	작은 개체	62.5mm

까지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조류 유존체 가운데 닭으로 확신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2. DNA 연구

앞서 살펴본 동물고고학적 연구에서는 특정 부위가 출토되지 않았을 때 꿩과 닭의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고고학 유적에서 파편으로 출토된 자료들 중에 닭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고고학 유적 출토 조류 유존체에 대한 DNA 연구(Hong, 2020)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동물유존체에 대한 DNA 연구는 자료가 파편으로 출토되어 형태학적 특징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나, 닭과 꿩의 경우처럼 육안 관찰로 종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분석을 통해 종을 동정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자료는 4세기경에 축조된 청주 봉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조류 유존체이다(그림 5). 이는 61호 토광묘 안에 부장된 원저단경호에 담겨 부장된 것으로 꿩 세 개체 분의 뼈로 동정 보고되었다(조태섭, 2017). 경산 임당 유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머리, 날개 발이 제거된 채 부장되었고, 보고된 부위별 계측치는 경산 임당 유적 출토 자료와 거의 유사하다.

DNA 분석은 꿩으로 보고된 조류 유존체의 대퇴골 2점에 대해 이루어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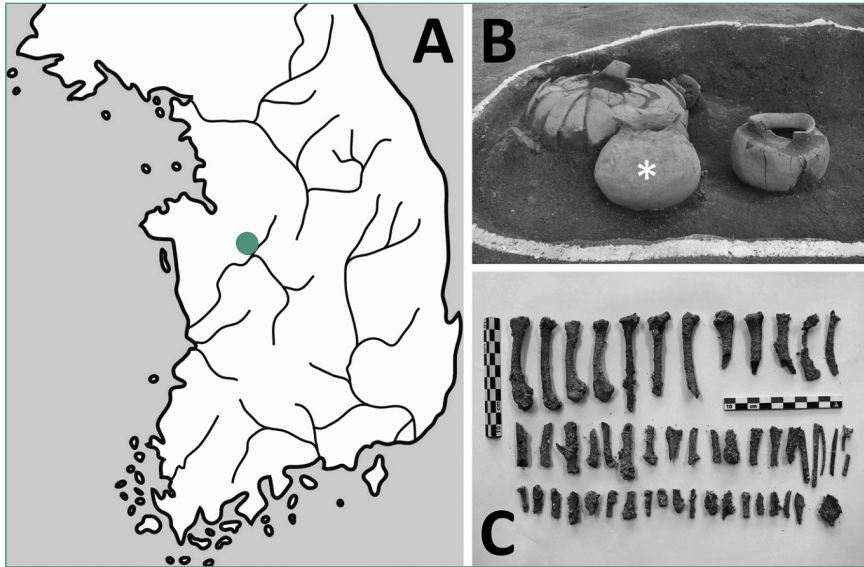


그림 5 DNA 분석이 이루어진 청주 봉산리 유적 61호 토광묘 원저단경호 출토 꿩 유존체  
A: 유적 위치, B: 원저단경호(\*) 출토 모습, C: 출토된 꿩 유존체 (Hong, 2020: 2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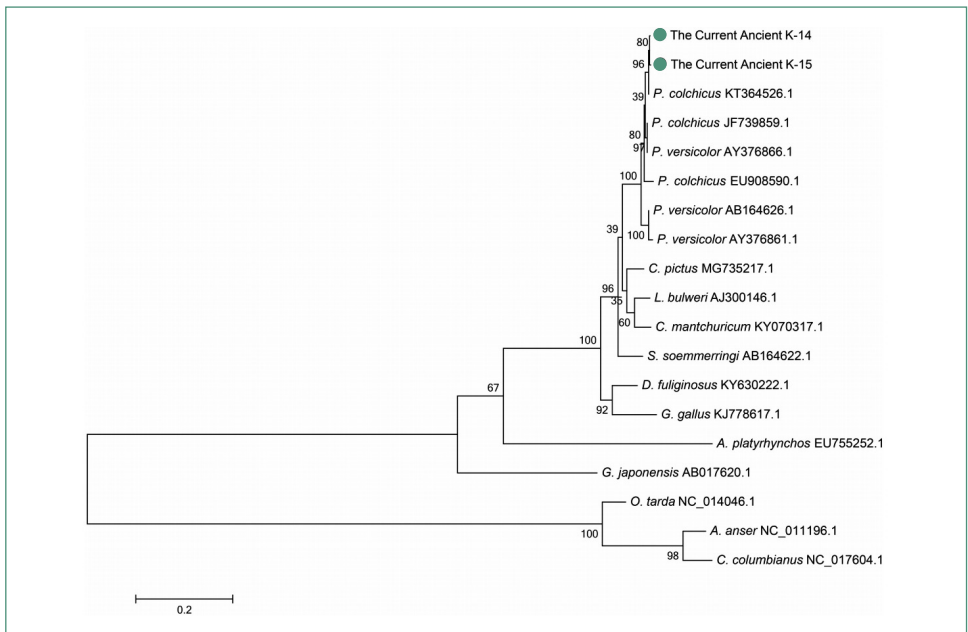


그림 6 청주 봉산리 유적 출토 꿩 대퇴골 2점(●)에 대한 DNA 분석 결과(Hong, 2020: 5 Fig. 4)

데, 그 결과는 꿩(*Phasianus colchicus* 또는 *Phasianus versicolor*)으로 재확인되었다. 닭(*Gallus gallus*)이나 그 외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른 조류종과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Hong, 2020: 4)(그림 6).

청주 봉산리 유적 출토 꿩 유존체는 경산 임당 유적 출토 자료와 형태와 크기 면에서 매우 흡사하다. 이에 대한 DNA 분석 결과가 꿩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고대사회 닭의 부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이후 추가적인 자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닭 유존체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한반도 삼국시대 고고학 유적은 생활유적 조사례에 비해 분묘유적이 월등하며, 따라서 동물유존체 역시 대부분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적어도 삼국시대 분묘유적에서는 닭의 존재를 고고학 자료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 V. 고찰

사육종 동물은 도입 초기 희소성으로 인해 일종의 위세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또 도입 주체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고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고고학적으로는 그 이전 시기부터 이용해 오던 동물들과 출토 맥락에 있어 차이를 보이게 된다. 한반도에서 사육종 동물의 도입 초기에는 이 동물들이 식료로 사용되는 생계경제적 맥락보다는 동물희생의례에서 의례적 목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많이 발견된다(이준정, 2013). 대표적인 사례로 사육종 돼지는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영남지역의 유적에서부터 확인되기 시작하는데(김현석, 2012), 사회경제적·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집단에 의해 특정한 목적하에 도입 또는 수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슴과 멧돼지 수렵을 통해 그 이전 시기에도 동물성 식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당시 생계경제 체계하에서 사육종 돼지는 육류 공급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의례적 맥락에서 동물희생의 제물로서 더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이다(이준정, 2011). 한반도 고대사회 대표적인 사육종 동물인 소와 말 역시 도입된 초기 이래로 상당한 기간 동안 식용

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농경을 위한 도구이자 교통수단이었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이자 신분의 상징이었다(이준정, 2013). 삼국시대에는 권력자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기도 했으며, 이후 국가 제사에 필수적인 제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신화 속에서 말·닭 등의 사육종 동물이 용·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들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은 사육종 동물의 도입 주체가 희소성 위에 상징성을 입혀 이를 사회적·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III장과 IV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sup>14</sup>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 이후 역사기록에 닭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고고학 유적에서는 닭 유존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고려시대 이후로는 요리서에 닭의 요리 방법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역사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닭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중종실록』에 “소 잡기를 닭 잡듯하니 소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sup>15</sup>라는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 가축으로 그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이 닭이며 닭은 집집마다 사육되어 그 요리법이 다양하다는(김태홍, 1989: 10-11) 주장도 있어 조선시대에는 닭이 널리 이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관건은 과연 삼국시대에 닭이 한반도에 도입되었는지, 도입되었다면 왜 도입되었으며,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사육종 동물을 기르는 것은 이 동물을 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도입 주체의 의지 위에,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먹이 및 사육 공간의 확보, 사육 기술에 대한 정보 등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충족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또 특정 사육종 동물에 적합한 기후 등 자연환경적인 요소도 만족해야 하므로 사육종 동물의 도입과 확산은 다른 문화요소의 확산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세계 각 지역에서의 닭의 확산 양상을 보면 인접한 지역에서 닭이 길러진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곧바로 도입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상당

<sup>14</sup> 현재 일본고고학계에서는 기원전후한 시기 이후로는 닭이 존재하며 대부분 한반도 혹은 중국과 관련된 유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고학 유적에서의 출토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연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sup>15</sup> 平安道宰牛饋客成風，如義州官，則赴京使客往來時，殺牛與殺鷄無異(『中宗實錄』卷6, 3年 8月 16日條).

한 시간차를 두고 닭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단 한번 확산이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인간의 삶 속에 자리 잡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러한 닭의 확산 방식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 대륙과 매우 인접해 있고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닭이 왜 좀 더 빨리 확산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육종 동물의 확산은 도입 주체의 상황과 의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설령 이미 사육종 동물을 기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사육종 동물을 전해 주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사육종 동물을 받아들일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이 닭을 순화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추정되는데, 먼저 식용하기 위한 목적, 둘째, 의례의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 셋째, 투계를 즐기기에 위한 목적이었다. 일단 한반도에서는 이전 시기부터 이미 꿩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이 닭에 대한 수용 의지를 저하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산 임당 유적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 고대사회에 꿩은 동물희생의례에서 제물로 적극 이용되었다. 꿩은 순화되지 않고 야생의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출토량으로 볼 때 당시 꿩을 포획하여 이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삼국 시대 고고학 유적에서 이처럼 꿩이 다수 확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닭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 고대사회에서 닭을 의례의 제물로 이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투계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놀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Serjeantson, 2009: 325).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에 투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으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성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영남지역에서는 닭싸움이 전통놀이로 남아 있다. 그러나 투계가 매우 유행했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해 한국 고대사회에서는 그만큼의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사육종 닭을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한국에서는 투계와 관련된 증거가 너무 적다.

의례의 제물도, 투계를 위한 것도 아니라면, 닭을 주로 식용하기 위해 사육했을 가능성이 남는다. 조선시대 요리서에 닭조리법은 중국 조리서에서 인용된 것이 적고 대부분 우리 고유의 것이며 중국의 요리서에는 닭보다 오히려 거위, 오

리, 기러기 등의 요리법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이성우, 1985: 216)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닭이 활발히 식용되었고 요리법도 매우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꿩은 포란 시기가 5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로(원병오·김화정, 2012: 142) 어린 꿩은 7월에, 성체는 보통 8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먹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기에는 독이 있고 또 맛이 없다(김태홍, 1996: 84). 이에 반해 닭은 항시 알<sup>16</sup>을 낳고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고대로부터 꿩이 매우 적극적으로 식용되었지만, 결국 야생종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수요에 비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닭이 꿩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고대사회 한반도에서의 닭은 식료원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 VI. 맺음말

나라를 세운 이를 상징했던 신성한 닭은 시간이 흘러 어느 여염집에서나 길러지는 흔한 가축이 되었다. 반면 죽은 이를 보내는 길에 가득가득 담아냈던 꿩은 더 이상 그러한 역할을 할 무대를 잃었고 점점 인간의 삶에서 멀어져 갔다.

본고에서는 역사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통해 한반도 고대사회 닭의 도입 과정과 이용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닭이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또는 확산되지 않았는지 검토하였으며,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닭은 중국 대륙이나 인도 등 아시아에서 순화된 뒤 세계 각지로 확산되었지만,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도입 양상은 상이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원전후한 시기 이후로 역사기록에는 닭이 등장하지만 고고학 유적에서는 닭 유존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인접한 지역에서 순화된 닭이 널리 사육되면서 식용되고, 투계 등이 성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즉각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육종으로서 닭이 가진 식료원으로서의 강점으로 인해 결국 기존의 꿩이 수행했던 역할을 대

<sup>16</sup> 달걀의 요리법은 조선시대 요리서부터 등장한다(이성우, 1985: 222).

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존재하는 양상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양상에 대해 그 이유를 찾는 것은 훨씬 어려운 작업이었다. 현재 한국고고학에서 조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다. 고고학 연구 자료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조류에 대한 연구를 보완해 갈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만 본고에서 소개한 동물유존체에 대한 DNA 연구는 기존 동물고고학적 연구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한 동시에 한국고고학 유적에서 DNA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조류 유존체와 같이 파손되기 쉬운 자료는 형태학적인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DNA 분석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21년 2월 22일 | 심사일: 2021년 3월 22일 | 게재확정일: 2021년 4월 2일

## 참고문헌

- 賀來孝代. 2017. “일본의 새 모양 유물의 양상: 고분시대를 중심으로.”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 고은별. 2011. “조영EIII-2호 출토 패각 및 동물유존체에 대하여.” 『압독국의 왕 ‘干’, 영원 불멸을 꿈꾸다』, 경산시립박물관·한빛문화재연구원.
- \_\_\_\_\_. 2013. “III. 고찰 8. 조영EIII-2호, EIII-3호 출토 동물유존체.”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X 造永 EIII-3號墳』, 영남대학교박물관.
- \_\_\_\_\_. 2014. “조영EIII호분 출토 동물유존체에 대하여: 포유류, 조류, 패류를 중심으로.”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XI: 造永EIII-4號墳』, 영남대학교박물관.
- \_\_\_\_\_. 2016. “조영EII-1, 2호 출토 동물유존체에 대하여.”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 XIII: 造永EII-2號墳』, 영남대학교박물관.
- \_\_\_\_\_. 2017. “조영EII-3호 출토 동물유존체.”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XIV: 造永EII-3號墳』, 영남대학교박물관.
- 고은별·이준정·김대욱. 2017. 『영남대학교박물관 소장 경산 임당유적 출토 동물유존체 분석자료집 I: 포유류·조류』, 영남대학교박물관.
- 권오영. 1999. “한국 고대의 새(鳥) 관념과 제의(祭儀).” 『역사와 현실』 32(한국역사연구

- 회), 93-122.
- 김태홍. 1989. “닭요리의 調理史의 考察.”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7(12)(상명여자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9-48.
- \_\_\_\_\_. 1996. “우리나라 꿩요리 調理法의 歷史的 考察.”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11(1)(상명여자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83-96.
- 김현석. 2012. “식성분석을 통한 영남지방 집돼지 사육의 시작과 존재양상.” 『한국고고학보』 84(한국고고학회), 4-29.
- 모기철. 1979. “池山洞 44號古墳 出土 動物遺骸에 對한 考察.” 『大伽倻古墳發掘調査報告書』, 高靈郡.
-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발굴조사보고서』.
- 원병오·김화정. 2012. 『한반도의 조류』, 아카데미서적.
- 이성우. 1984. 『한국식품사』, 교문사.
- \_\_\_\_\_. 1985. 『한국요리문화사』, 교문사.
- 이장웅. 2017. “문헌에 나타난 한국 고대 동물 관념과 의례.”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 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 이준정. 2003. “동물 자료를 통한 유적 성격의 연구: 동삼동 패총의 예.” 『한국고고학보』 50(한국고고학회), 5-30.
- \_\_\_\_\_. 2011. “飼育種 돼지의 韓半島 出現 時點 및 그 社會經濟的·象徴的 意味.” 『한국고고학보』 79(한국고고학회), 131-174.
- \_\_\_\_\_. 2013. “한반도 선사·고대 동물 사육(動物飼育)의 역사와 그 의미.” 『농업의 고고학』, 사회평론.
- \_\_\_\_\_. 2017. “꿩 대신 닭?: 고분 출토 동물유존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 조태섭. 2017. “청주 봉산리 삼국시대 토광묘 출토 꿩뼈의 연구.” 『고고학』 16-2, 5-25.
- 채미하. 2016. “신라 국호의 양상과 계림.” 『신라사학보』 37(신라사학회), 1-32.
- 한빛문화재연구원. 2020. 『경산 임당 1호분: 본문』.
- Barton, L., B. Bingham, K. Sankaranarayanan, C. Monroe, A. Thomas, and B. M. Kemp. 2020. “The Earliest Farmers of Northwest China Exploited Grain-fed Pheasants not Chickens.” *Scientific Reports* 10(1), 1-7.
- Blench, R. and K. C. MacDonald. 2000. “Chickens.” In *The Cambridge World History of Food* (vol. 1), 496-499. K. F. Kiple and K. C. Ornelas, e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utton-Brock, J. 1999. *A Natural History of Domesticated Mammals*,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a, M., P. Lu, H. Kikichi, Z. Li, F. Li, and J. Yuan. 2016. "Reevaluation of Early Holocene Chicken Domestication in Northern Chin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67, 25-31.
- Hong, J. H., C. S. Oh, Hwan-il Kim, E. J. Woo, T. S. Cho, and D. H. Shin. 2020. "Ancient Mitochondrial DNA Analysis of Avian Bones Collected from the 4th Century Pit Burial Found in South Korea." *Archaeological Research in Asia* 24, 1-6.
- Houlihan, P.F. and S. M. Goodman. 1986. *The Birds of Ancient Egypt*. Warminster: Aris and Phillips.
- Lawal, R. A., S. H. Martin, K. Vanmechelen, A. Vereijken, P. Silva, R. M. Al-Atiyat, R. S. Aljumaah, J. M. Mwacharo, D. D. Wu, Y. P. Zhang, P. M. Hocking, J. Smith, D. Wragg, and O. Hanotte. 2020. "The Wild Species Genome Ancestry of Domestic Chickens." *BMC Biology* 18(1), 1-18.
- MacDonald, K. C. 1992. "The Domestic Chicken (*Gallus gallus*) in Sub-Saharan Africa: A Background to Its Introduction and Its Osteological Differentiation from Indigenous Fowls (*Numidinae and Francolinus* sp.)."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19, 303-318.
- Matsui, A. 2007. *Fundamentals of Zooarchaeology in Japan and East Asia*. Nara: Kansai Process Limited.
- Reitz, E. J. and E. S. Wing. 2008. *Zooarchaeology*,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Secon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rjeantson, D. 1988. "Archaeological and Ethnographic Evidence for Seabird Exploitation in Scotland." *Archaeozoologia* II(1/2), 209-224.
- Serjeantson, D. 2009. *Birds*. Cambridge Manuals in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adman, D. W. and B. Rolett. 1996. "A Chronostratigraphic Analysis of Landbird Extinction on Tahuata, Marquesas Islands."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23, 81-94.
- Storey, A. A., J. M. Ramirez, D. Quiroz, D. V. Burley, D. J. Addison, R. Walter, A. J. Anderson, T. L. Hunt, J. S. Athens, L. Huynen, and E. A. Matisoo-Smith. 2007. "Radiocarbon and DNA Evidence for a Pre-Columbian Introduction

of Polynesian Chickens to Chil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4(25), 10335-10339.

Storey, A.A., T. Ladefoged, and E.A.Matisoo-Smith. 2008. “Counting Your Chickens: Density and Distribution of Chicken Remains in Archaeological Sites of Oceania.” *International Journal of Osteoarchaeology* 18(3), 240-261.

## Abstract

## The Spread of Chickens in East Asian Ancient Society and Its Meaning

Eunbyul K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omestication of chickens occurred relatively recently in the Chinese continent and the Indian sub-continent and has spread to all parts of the world. However, the rate of spread was not uniform in each region, and domesticated chickens did not easily spread to surrounding areas,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case of other domesticated species. Introducing and raising domesticated animals must meet all th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the region into which that animal is being introduced. Once introduced, these animals tend to become regarded as prestige products due to their scarcity. In Korea and Japan, the introduction and spread of chickens took place very slowly despite these regions being located very close to the Chinese continent, one of the central areas of chicken domest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chickens appear to have symbolized the founding power base of Silla, providing political capital due to its scarcity in the early days of its introduction. However, since wild pheasants were actively used for food and sacrificial offerings on the Korean Peninsula, domesticated chickens did not immediately replace them. It was only gradually over time that domesticated chickens replaced the wild pheasants.

**Keywords** | animal domestication, domesticates, chicken, *Gallus gallus*, pheasant, *Phasianus colchicus*